신용카드 하루평균 650억 결제

■ 호남지역 카드 씀씀이 살펴보니

유통업체 144억·주유소에서 116억 이용

광주·전남지역 카드소지자들은 마트 등 유통업체와 주유소에서 카드를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지역·업종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하루 평균 카드 이용액(현금서비스와 해외 이용실적 제외)은 지난 2월 현재 650억원으로 전달보다 6.2% 증가했다.

업종별 카드 결제 실적은 유통업이 144억3000만원으로 전체 카드 이용액의 22.2%에 달했다.

이어 주유 등 연료판매 17.8%(115억7000만원), 의류·잡화(화장품) 9.8%(63억7000만원), 음식·숙박 9.0%(58억5000만원) 순으로 카드 결제 비중이 컸다.

특히 의류·잡화 부문 이용비중은 광주와 전남·북이 전국 8개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교육(학원)부문 비중도 5.3%(34억4500만원)로 전국 평균(3.8%)을 웃돈 것은 물론 8개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골프장 결제비중도 전국 평균(0.3%)의 두배인 0.6%(3억9000만원)를 기록했다. 오락·문화(레저시설·용품) 카드결제 비중도 5.3%(34억4500만원)로 전국 평균(4.2%)을 앞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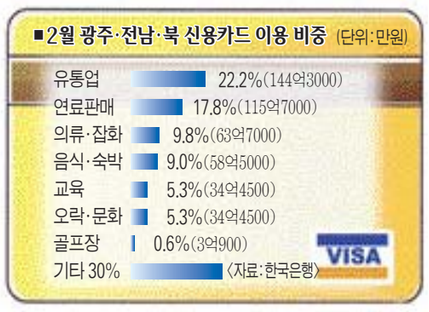
이에 비해 여행·교통 부문 비중은 0.3%(1억9500만원)로 전국 평균(1.9%)을 크게 밑돌았다.

지역별 카드 이용 실적(가맹점 소재지 기준)의 비중은 서울 35.7% 등 수도권이 62.9%를 차지했고 부산·울산·경남(10.5%), 광주·전라(8.9%), 대전·충청(7.0%), 대구·경북(5.9%), 강원(2.3%), 제주(1.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비중이 큰 것은 홈쇼핑·인터넷업체 상당수가 서울에 있고 새 차 구입과 보험료 납부 결제에 대한 승인이 주로 본사 소재지(서울)에서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내 하루 평균 카드 이용액은 지난 2월 현재 7283억원으로 전달보다 6.9% 증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키워드 경제 영화관에도 수요공급 법칙 있다

삶의 현장 곳곳에도 경제원리가 숨어있다. 영화관에도 수요공급의 원리가 적용된다. 대표적인 게 조조할인이다. 공급(영화)은 일정하지만, 이른 아침에는 수요(관람객)가 적기 때문에 티켓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한 경우다. 반대로 수요가 몰리는 주말 영화의 티켓 가격이 평일보다 비싸게 매겨지기도 한다.

이론상으로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다. 예를들어 지난해 수박 한 통 값이 5000원 했고, 올해 수박의 수요가 1000통으로 예상되는데 농가에서 출하한 물량은 500통뿐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경우로 이 때 농가가 수박값을 7000원으로 내놓아 팔리면 가격이 7000원으로 정해지는 식이다. 반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이면 가격이 낮아진다.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을 이루는 이른바 수급균형 상태가 될 때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경제이론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이치를 '수요의 법칙',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주는 것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가격이 전적으로 시장에만 맡겨져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정부는 한 개 기업만이 제품을 생산하거나(독점) 소수기업(과점)이 상품을 생산, 가격을 제멋대로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제정,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료제공=(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월드컵 감동 3D TV로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6월 시작되는 월드컵 경기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8층 가전매장에 3D TV를 선보였다. 백화점은 3D TV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 진출시 구입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식탁에 국산 생선 사라진다

명태·고등어 등 어획량 급감…외국산으로 대처

외국산 생선이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명태, 고등어, 꽁치 등 생선이 빠르게 외국산으로 바뀌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근해의 수온이 올라간데다 유가 상승으로 조업비용이 증가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이마트를 비롯해 지역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생태는 대부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수입된 것이고, 동태 역시 러시아산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근해의 수온 상승과 남획으로 명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산이 대부분이었던 고등어도 한파 등 기상이변에다 고유가까지 겹쳐 조업량이 줄면서 일본산 고등어로 대체됐다. 6월 이후부터는 국산 고등어를 맛볼 수 있지만 물량이 부족해 수입산보다 비싸게 팔릴 것으로 보인다.

꽁치도 대만 국적의 어선이 북태평양에서 잡은 것들이며 새우도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한 화이트새우 또는 블랙타이거가 판매되고 있다.

오징어는 국내산은 가격이 비싸 원양어선으로 포클랜드에서 잡아오는 것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고등어·생태 등은 근해에서 거의 잡히지 않아 수입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재래시장과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19일까지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했다.

재래시장 가맹점 중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상한선이 2.0~2.2%에서 1.6~1.8%로 낮아졌다. 현재 서울시내 3대 대형마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6~1.9% 수준이다.

/연합뉴스

꺾기관행 포괄적 금지 은행법 개정안 통과

은행이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은행이 금융상품 광고를 할 때는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26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27일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금도 은행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 금융당국이 제재하고 있지만, 개인 대출자에 대한 꺾기는 제재규정이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광주농협 '都農 상생'

농촌형 조합에 자금 지원

도시조합인 서광주농협(조합장 직무대행 이한석)이 매년 수십억원의 무이자 지원금을 농촌형 조합에 지원, 도농(都農)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서광주농협은 "올들어 광주시 관내 농촌형 조합 지원사업으로 본량농협에 4억9000만원, 삼도농협에 13억1000만원, 광주시 연합RPC(미곡종합처리장)에 7억원 등 모두 25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한석 대행은 "개방시대를 맞아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라며 "지난 2006년부터 위기에 처한 농촌 농협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광주농협은 지난해 전국 1181개 단위농협 가운데 사업규모 27위, 여수신규모 1조3000억원에 달할 정도의 초우량농협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지난 9년 동안 733명의 조합원 자녀들에게 모두 3억4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환원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